

# 法돌이

## Bubdori



**이동우** | Lee, Dong-woo, KIRA  
(주) designworks THE 테하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약력

- 건축사/인하대 졸업
- 서울시 중랑구 디자인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 미술전문대학원
- 건축사지편찬T/F 위원
- 공공환경디자인학 전공

### 에피소드 1

서울에 물폭탄이 한창이었던 7월말 광화문광장에서는 작은 집회가 하나 있었다. 낙농농가의 원유 가격 인상 요구 집회였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한 대국민 호소였다. 2008년 이후 원유 가격이 3년간 동결되었고, 이상 기후로 인한 우유 생산량 감소와 경비의 증가로 원유가를 L당 704원에서 L당 173원(24.5%)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긍정적인 반응의 논평을 내놓았다.

### 에피소드 2

건축사 설계·감리 대가 기준 연구가 지난 해 말부터 올 7월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2002~2011년 10년간 건축사 설계·감리 대가 기준의 인상률은 0%였다. 그러나 지난 2002~2010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27.9% 제조업 평균 임금은 51.7% 상승하였다.

### 에피소드 3

여러 해전 새롭게 취임하는 단체의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다.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제도위원회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다. 여러 해가 또 흘렀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법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이런 이유로 나는 ‘法돌이’라는 닉네임이 생겼다.

### 法돌이

한 집단의 건강함과 행복은 중간 계층의 많고 적음으로 갈음할 수 있다. 특정 소수만이 부유한 것은 집단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행복 지수의 저하를 초래한다.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다수를 잘살게 하자는 민생론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리더의 단골 메뉴였지만 많은 경우 구호와 이벤트 행사로 마무리 되고, 책임과 현안 회피용으로 이용되어 왔다.

어떤 세력이 진정 조직의 다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조직을 위한 법제화에 적극적이고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여부로 알 수 있다.

또한 단체의 건강함은 사회를 선도하고 힘을 모으는 응집력이 있는가 여부로 알 수 있다. 사회를 선도할 명분과 동력을 상실한 단체와 리더는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고, 본질적 현안에는 눈을 감은 채 비본질적 현상을 두고 사변적 논쟁에 몰입하게 된다. 이때 시대는 새로운 세력을 찾는다.

사회의 건강함과 행복은 개인과 국가의 최고 가치이며, 건축 분야의 법과 제도 개선은 건축계의 건강함과 행복 가치 추구의 초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인식공유를 기반으로 관련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 이제 구호와 공약이 아닌, 실질적이며 결과물이 도출되는 노력과 실천력을 보여야 한다. 많이 어렵고 힘든 현실에 협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대의 호명에 부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는 소망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건축계를” 